

釜山 直轄市 支部

支部長 人事

을축년 새해와 더불어協會가 성년의 새벽을 맞으면서, 영욕이 점철된 회원님의 피땀 어린 20년의 뜨거운 발자취를 돌이켜 음미하고 이를 교훈삼아 오늘의 좌표와 내일의 진로를 재조명해 본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며 자랑스러운 회지의 “支部巡禮”란을 통하여釜山支部의 발전상을 단편적이거나 소개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부의 번영이 곧會員 개인의權益伸張과地位向上에 직결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진지하게 자세를 가다듬어 회원의 간절한 여망과 기대에 부응 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支部의 발전을 위한 선배 회원님들의 크나큰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협조와 성원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 합니다.

現 況

• 위 치

부산직할시 중구 동광동1가1번지 (부산대파트 202호) (사무실: 임대사용, 면적: 63평)

지부장 黃 在 洙

• 회 원

291명 (사무소: 224개소)

• 임 원

지부장 1명
간 사 4명
감 사 2명



黃在洙 釜山支部長

(대의원 15명, 정화위원 8명)

• 직 원

사무국장 1명
총무부장 1명
총무과장 1명
기타직원 4명 (운전기사 1명 포함)

成長過程

1963. 12. 16자 법률 제1536호로 제정 공포된 建築士法에 의거 1965. 4. 25. 建設部에서 최초로 실시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建設部長官의 면허를 받고 地方長官에게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완료한 건축사 故 廉性祚 회원의 21명이 1965년 7월 3일 발기인 총회를 갖고 준비위원 7명을 선출하여 지부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위원장: 廉性祚, 위원: 柳光澤, 許善行, 申玉崗, 千昌吉, 朴允彩, 鄭炳和) 하고 지부창립총회 준비작업을 완료한후 1965. 7. 13일 회원 32명 전원과 釜山市建設局長(金萬淵) 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지부장에 許善行씨 선출을 비롯하여 임원진을 구성함으로써 본지부가 발족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본회가 창설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1965. 9. 25일 및 1965. 10. 23 양일간에 개최된 본회 창립총회에서 제정된 정관에 의거 1965. 11. 19일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지부장(柳光澤)을 비롯하여 간사 5명과 감사 1명을 선출하므로써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1965. 12. 3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協會設立許可를 받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법인체 등기를 완료한 본회의 등기부 등본에 의거 1965. 12. 9일 부산지방법원에 당지부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釜山市中區新昌洞 1가 8번지의 사무소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이래 1967. 7. 12일 釜山市中區忠武洞 2가 3번지로 사무소를 이전한 것을 비롯하여 1968. 3. 5일 부산시 중구 신창동 1가 8번지로 이전, 1969. 11. 15일 부산시 중구 동광동 1가 1번지로 이전, 1970. 8. 15일 부산시 중구 광복동 1가 61번지로 이전하는 등으로 매년 사무소이전을 거듭하다가 1974. 12. 28일자로 현위치인 부산시 중구 동광동 1가 1번지(부산테파트 202호)에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창립당시 32명에 불과했던 회원이 1970년도에 무려 119명으로 늘어 근 4배의 신장률을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1975년에는 210명, 1980년에 245명 등 매년 평균 15%의 증가를 거듭하여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지금은 291명이라는 회원을 포용하는 막강한 지부로 성장 발전하였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는 회원수와 더불어 이에 따르는 문제점 또한 심각한 양상으로 대두되었다. 建築士에 대한 建築主 등 일반의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70년대에 들어 서면서 그수가 급격히 늘어나 대부분의 영세성을 면치 못한 건축사사무소가 그 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업무 수탁을 위한 회원 상호간의 보수액에 대한 割引競爭이 치열하여 분쟁이 빈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설계를 수탁하였

다 할지라도 건축주의 무리한 요구 조건을 거절하지 못하므로 해서 발생하는 위법 건축물로 말미암아 건축사는 “울며겨자 먹기” 식의 행정 처분은 물론 보수액의 受納不振, 不能 등을 또한 감수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釜山支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유업에 따르는 공통된 근본적인 문제점으로서 일대 시련기적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즈음 지부는 한정된 회원업무의 영역을 넓히고 급변하는 사회발전예 부응할 수 있도록 수용태세를 정비 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회원의 이해와 노력의 높은 참여 의식으로 결속하여 지혜를 모아 우애와 신의로써 상부상조하고 공존공영을 기약하는 自律規制式 예치제도의 福祉會를 등장시켰다.

온갖 애로와 난관을 함께 극복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개선 보완해 가는 동안에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던 과당경쟁은 협동과 단결의 그늘 속으로 점차 밀려갔고 회원간의 분쟁도 사라져갔다.

회원의 사진이 수록된 수첩을 제작 보급하여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해 가는 한편 야유회와 체육대회 또는 산업시찰등 많은 회원이 자리를 함께할 수 있는 단합행사를 통하여 친목을 증진해 나감과 동시에 회원의 慶吊事에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참여하여 상부상조함으로써 총화단결의 기틀을 다져 나갔다.

보수액의 할인경쟁에서 비롯되었던 업무의 편중 현상이 줄어들고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면서 부터 회원의 업무 활동이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造形創作 藝術人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전문인의 자세를 견지하여 건축사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높여 갔으며 몰지각한 일부 건축주 등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여유도 갖게 되었다.

특히 지부의 豫算制度가 77년 부터는 전국 통합예산으로 바뀌면서 한정되고 빈약해진 지부의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각종 대외 지원사업을 전회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참여로 순탄하게 펼쳐 나갈 수 있었다. 식수헌금, 원호성금, 방위성금, 명절및 연말 연시 불우이웃돕기성금, 각종재해의연금, 새마을사업지원금, 기념관 건립성금, 유관기관의 대민사업 및 행사 지원금, 자매결연학교 지원금 등의 시의 적절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에 이바지 함으로써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품위보전에 획기적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부의 운영체제를 현실에 부합하게 확대 개편하여 명실공히 建築界를 주도하는 대표적 기구로 성장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더우기 支部長을 비롯한 일부의 회원이 의례적으로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부산시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역사회 개발의 주역으로 市政에 참여 하므로써 회원의 권익신장과 더불어 지위향상이 구체적으로 가속화되었다.

支部의 運營 方針 및 進路

支部는 이제 성년기에 접어드는 새로운 전환의 뜻깊은 시점에서 성년의 역할을 다 하기위해 회원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 나가야 할때라고 생각된다. 支部는 그동안 갖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회원모두의 헌신적인 참여와 부단한 노력으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기울인 노력과 공적에 대한 代價는 너무도 미흡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제 지나온 발자취를 거울삼아 부족했던점은 보완하고 미흡했던 사항은 더욱 충실을 기하여 면모를 일신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위해 지부는 앞으로 회원상호간의 和睦과 信義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의 친목단합행사를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협회가 회원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감하고 회원이 원하는바를 부단히 살피서 실질적으로 奉仕하는 기풍을 진작 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

특히 회원의 권익과 복리가 직결되어 있는 福祉會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이해와 협동으로 공동체 의식을 높여갈 때 지부의 앞날은 밝을 것으로 확신되며 회원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높은 참여의식이 절실히 기대되는 바이다.

또한 建築文化의 暢達을 위해 전문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하고자 애쓰고 있는 절대다수의 선량한 회원

을 보호하기 위하여 극소수 일부 건축사의 비위라 할지라도 결단코 근절 되도록 할 것이며 倫理觀의 확립을 위해 자율정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建築關聯法令과 制度 등에 따른 준수사항과 벌칙 등에 관한 대민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建築主 등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일반의 건축에 대한 이해증진을 통하여 건전한 建築風土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그리고 회원의 건축기술 증진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國際交流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과 아울러 회원의 숙원인 支部會館 建立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동시에 모든 회원의 높은 긍지와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本會에 對한 建議

1. 증가일로에 있는 회원수와 부산지역의 교통사정 등을 감안 회 의 圖書申告 업무에 편익을 기할 수 있도록 2개소의 分析 설치 요망
2. 建築士 補修教育의 지역별 순회실시
3. 實績會費 징수기준의 간소화
4. 年老會員(장기근속)에 대한 노교대책 강구

年度別 會員數 및 設計圖書申告 現況

년 도 별	회 원 수	도 서 신 고 실 적
1965	32	
1966	59	
1967	73	
1968	91	
1969	103	
1970	119	
1971	142	1,172,134
1972	157	999,030
1973	165	2,621,581
1974	179	1,994,839
1975	210	2,455,683
1976	210	2,349,409
1977	221	2,966,754
1978	233	4,595,529
1979	235	3,358,146
1980	245	3,065,189
1981	250	1,775,503
1982	252	2,754,350
1983	268	3,398,845
1984	291	2,965,138

歷代支部長

구 분	성 명	사 무 소 명
초 대	許 善 行	부산건축설계사무소
제 1 대	柳 光 澤	오주일민건축설계사무소
제 2 대	許 璟 元	대영건축사무소
제 3 대	李 鍾 壽	동성건축설계사무소
제 4 대	金 澤 辰	김택신건축설계원
제 5 대	姜 錫 根	국제건축설계사무소
제 6 대	金 圭 泰	항도건축설계사무소
제 7 대	柳 光 澤	오주일민건축설계사무소
제 8 대	張 起 秀	동인건축사무소

行政區域別 會員現況

행정구역	건축사	2급건축사	계	사무소수
중 구	62		62	46
서 구	7		7	4
동 구	31	1	32	23
영 도 구	1	1	2	1
부 산 진 구	55	6	61	43
동 래 구	55	8	63	51
남 구	26	4	30	23
북 구	20		20	19
해 운 대 구	1	3	4	4
사 하 구	8	2	10	9
계	266	25	291	223

任員現況

직 위	성 명	사 무 소 명
지 부 장	黃 在 溍	오주일민건축설계사무소
간 사	朴 泰 根	동화건축설계사
"	李 秉 仁	삼중건축설계사무소
"	張 相 進	동신건축설계사
"	車 元 日	유창건축설계사무소
감 사	鄭 煥 鎬	미래건축설계사무소
"	吳 千 福	낙원건축설계사무소

기타 主要業務 推進 實績

앞서 소개한 사업을 근간으로한 기타의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概觀 하면 아래와 같다.

1. 설계도서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自律的 設計圖書檢討制 실시 (72년)
2. 건축사업무에 관한 이해 증진과 對 행정관서의 유대강화를 위해 建築關係官 및 회원 연석간담회 매년실시
3. 日本建築士事務所協會 大分支部와 상호 교환방문으로 국제친선및 기술교류회 개최
4. 보조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인별 카드제 실시 (78년)
5. 회원 휴게실 설치및 오락기구 비치
6. 건축행정 민원상담실 운영
7. 회원업무 강습회 개최
8. 顧問 稅務士 위촉으로 회원의 납세업무에 대한 편익 도모
9. 일간지를 통한 홍보및 안내문 제작 교부 등으로 대민홍보 실시
10. 자율정화활동 적극추진으로 회원사무소 정비 강화
11. 회원상호 친목증진으로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趣味活動部署의 조직운영
12. 정회원회비 징수방법의 개선 시행
13. 세금준비금 예치제 실시
14. 실적회비 산출일람표 제작 교부